東亞日報

今日四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
印刷人 薛

印度의 騷動

一

印度의 治安問題는 一個英帝國의 原料나 食糧의 供給地로 英國의 盛衰와 休戚에만 關係가 잇는 것이 아니라 印度가 英帝國에서 解放을 바드면 大帝國이든 英國이 崩壞를 當하고 大帝國인 英國이 崩壞를 當하면 現下의 所謂 强國이 維持하고 잇는 殖民地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必然的으로 大騷動을 未免할지니 萬一 印度가 自由獨立이 된다 하면 적어도 東洋에서는 政治界에 一大破天荒의 波紋을 이르킬 것은 避치 못할 自然的 約束이오 運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恒常 印度에 對한 英國의 政策과 그 政治下에 統治되는 印度人의 情狀을 다못 볼 것이 아니라 印度人의 興亡에 關한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世界에 及하는 波動의 脈絡으로 더욱 注目하는 바이다

二

그런데 二十二 三日 甲谷陀發 電報에 依하면 自治體의 運用에 關한 問題로 紛擾가 이러나서 警官과 民衆의 大衝突이 잇섯고 그로 因하야 不少한 死者와 多數한 負傷者를 내엿스며 形勢는 險惡化하야 北印度 全般에 擴大되여서 엇더한 事態로 惡化할는지 推測키 어렵다는 것을 傳한다 電文이 넘우 簡單함으로 좀더 그 眞相을 알지 아니하고는 엇더하다는 것을 論評하기가 甚히 어려우나 ……

三

即自己는 暴力으로는 印度의 政治를 進步식힐 수 업다고 밋는다 …… 「다스」氏 …… 昨年四月 英國上院에서 印度大臣 …… 地方議會에서 存在하던 中央立法議會及 ……

四

그리하야 「쓰와라지」黨은 二三年來에 中央에서나 地方에서나 豫算을 否決하야 直接 或은 間接으로 不完全한 地方自治에 反對를 ……

齊氏入京後 巨頭會議開催?
地盤、國軍追擊問題審議次로

齊燮元氏의 入京에 伴하야 二十五日 閻錫山氏等 巨頭會議를 開催할 時는 孫傳芳氏도 出席하리라는 希望을 表示하엿다 ……(北京二十四日發)

孫氏도 參加

北京에 잇는 孫傳芳氏代表에 게 達한 情報에 依하면 吳佩孚、張作霖 ……(北京廿四日發)

齊燮元氏入京

齊燮元氏는 各方面 盛大한 歡迎裡에 二十四日 夜八時 入京 直時 張學良 李景林 張宗昌氏等과 會見하엿더라(北京二十四日發)

護憲派議員北上
但王衛戍總司令辭任後

吳景濂氏等의 護憲派議員은 王懷慶氏의 衛戍總司令辭任後 即時 北上하리라더라(北京廿四日發)

法權委員 出發期決定은 來二十八日會議에서

某處着電에 依하면 中國側의 法權會議調查員에 對하야 二十三日 漢口 行特別列車가 準備되엿슴으로 出發하겟다고 申請한 바 列國委員은 二十八日 會議에서 決定하기로 決하엿더라(東京電)

賀耀祖氏蹶起
唐生智反對를 表明

常德의 賀耀祖氏는 唐生智反對를 表明하얏더라(漢口廿三日發)

市內警備權 王懷慶氏가 掌握
王觀銘氏軍히 警備司令으로

王懷慶氏는 吳佩孚氏를 代表하야 衛戍總司令으로서 市內警備의 全權을 掌握하게 되고 聯合軍이 任命한 王觀銘氏는 單히 警備司令으로 其下에 屬하게 되엿더라(北京廿四日發)

魏軍이 齊氏에게 隷屬

魏益三氏는 部下를 率하고 齊燮元氏에게 隷屬하얏더라(漢口廿三日發)

奉軍暴行太甚
日營銀行에까지侵入
芳澤公使는 直時對張警告

某處入電에 依하면 張學良氏 其他 要求하고 脅迫的 態度임으로 芳澤公使는 直時 張宗昌氏에게 對하야 警告를 發하는 同時에 外交團도 …… (東京電)

五省聯軍 張家口에 肉迫?
◇庫倫까지 奪還計劃

奉軍과 直魯聯合軍은 南口附近의 軍의 손에서 奪還할 計劃을 進捗中 …… 庫倫을 勞農露西로부터 ……

카大使召喚要求
聯軍秘密會議에서 決議

二十二日 漢口聯合軍司令部에 秘 「카라한」大使의 召喚을 要求할 件 …… 決하엿다고 하더라(漢口二十二日發)

세氏張氏와 默契
中東線回收運動에 鑑하야
카氏後任은 奉側信賴人物로
「세」張諒解成立

關稅會議前途

去二十日 英國委員으로부터 突然 …… 不許하더라(北京電)

日本、中國 鐵道連絡會議

日中鐵道連絡會議는 五月十九日 鐵道省에서 開會한 바 出席者는 日本側 長田局長 以下 三十名 中國側 路政司長 劉景山 以下 十四名과 ……(東京電)

箕浦氏連累로 大阪知事도 召喚?
◇一層擴大되는 松島事件

某省政務官도?

箕浦氏의 悲痛한 監房生活

智利民衆大會 「타」國獨立에 反對

獨逸在留 土兵歸國準備

土大統領의 魂膽
對英露策과 國防計劃

獨逸議會解散?

米移民法緩和

露獨間中立條約
近日中調印하게 될듯

日領事館新設
「노보지빌스크」에

松方氏出發
資本家代表

佛西間에 條約交涉進捗

兩教徒衝突

印度騷亂擴大?
市中混亂
警察官慘殺、死傷者가 이미 九十餘名

徵兵令 改正案內容

警務局內에 勞働課新設?
三矢局長이 必要를 力說

壇君論 (九)
朝鮮을 中心으로 한 東方文化淵源研究

箕浦氏는 아즉 不起訴

檢事局은 徹底調查方針
大阪檢事局의 活動

個人問題로 取扱
憲政會態度

寄附取次는 事實
◇高見氏談

異動警察 파쓰再次發行
頻頻한 盜難에 鑑하야

博士論文 審査料二倍上?

明年度부터 移入稅撤廢?
日本實業家等要求로 具體化

倉富樞府議長
◇容態頗憂慮

川村元帥重態

國庫歲入出
三月末現在

大藏省調査에 依한 大正十五年三月末現在의 國庫歲入歲出은 左와 如하더라(東京電)

▲歲入經常部 六億八千二十七萬圓
印紙稅 八千二百三十五萬一千圓
官業及官有財産收入 二億四千二百七十九萬圓
雜收入 一千六百六十萬五千圓
合計 十億二千二百二萬三千圓
臨時部合計 五億四千七百九萬一千圓
▲歲出經常部
皇室費 四百五十萬圓
外務省 一千四百四十六萬一千圓
內務省 三千四百三十三萬八千圓
大藏省 二億四千九百三十四萬五千圓
陸軍省 一億四千三百九十一萬五千圓
海軍省 (※ illegible)
司法省 二千六百二十三萬六千圓
文部省 七百十六萬二千圓
農林省 二百八十萬三千圓
商工省 一千九百五十九萬三千圓
遞信省 二億二千五百四十一萬七千圓
▲臨時部
外務省 四百十五萬二千圓
內務省 一億二千九百四十七萬五千圓
大藏省 三千百三萬圓
陸軍省 三千九十二萬六千圓
海軍省 八千二百二十六萬三千圓
司法省 百九十九萬二千圓
文部省 一千七百七十九萬三千圓
農林省 一千八百五十一萬五千圓
商工省 七百十一萬八千圓
遞信省 六千三百三萬三千圓
歲出合計 十二億八千五百四十二萬五千圓

辭令

工學博士 丸澤常哉
任京城帝國大學教授(二等)
總督府技師 北村松四郎
依願免本官

消息

▲齋藤總督은 今夜午後七時五十分松汀里發歸任

橫說竪說

◇「메이데이」示威運動을, 日本서는 擧行하고, 朝鮮서는 嚴禁이 것을, 當局者는 曰「無差別」이라고, 造物主가 그 비둘을, 만들 時에는, 참간, 精神의 異常이 잇섯던지? 常識는 아니여서 陜隘으로는, 過甚하니 低能인가? 喪失인가?

◇松島遊廓事件으로, 畢竟收監된 憲政會長老 箕浦氏가, 그 갓 治罪를, 執行하게 된 原因은, 淸節四十年에, 致窮이 莫甚한 外이라고, 가난이 怨讐로군!

五百年宗祀의最後皇上
前韓國隆熙帝李王殿下危篤
寶位四年世一變, 萬機自忘十七年

—오래동안환후침중하옵시든창덕궁뎐하께옵서는 작일오젼여섯시경에드듸여매우위독에듭시엇다—

숙환인 위장병과 심장염과 심장병『류마지스』등의 환후중에계시든 리왕뎐하께옵서는 그간 멧칠동안 소강하신용태를 가지시엇섯스나 재작이십사일부터 다시 용태에 변화가계시어 뇨량(尿量)이줄고 맥박이 순서롭지 못하게되여가시다가이십사일열한시경부터는각각으로위험하여지매모든의술의 방책을다하엿스나 세시경부터 수면상태에 빠지시엿다가 다섯시경부터는 매이 아주 미약하시어가다가 여섯시십오분에는회생되시지못할위독에빠지시엿는데단생하시여 유시로부터 만흔파란을 겪고시다가 광무십일년에 등극하시어 재위사년동안에 모든고초의 력사를가지시고 일한합방후 무심한세월의재촉을바드시든 젼대한륭희황뎨재옵서는 오십삼세로써 아조『위독』하시엿다

—危篤하옵신昌德宮殿下—

再昨日以來의 御危篤經過
最後까지强身注射
—밤중부터갑작히위독하게되서 만책을다하엿스나필경은무효—

숙환인위장병과신장염(腎臟炎)파심장병등으로위험상태에빠지시어 주사로 겨우시간을니으시든왕뎐하께옵서는그간약간신열이나리시고의식이회복되서서커옥히수미를붉수잇섯스나신장염에관련되는뇨량(尿量)이불지를안코부종이내리시지를안어일진일퇴의형세에 계시다가 재작이십사일부터 긔색이 다시피로하신용태를 보히시더니 이십사일야반부터는 차차 위험하신상태에빠지심으로 숙직의사이든 안상호(安商浩)씨등은 응급처치를하며 일방으로 주치의 암연(巖淵)박사에 응급통지하야 암연박사는 이십오일 오젼한시에 입시하야 배진하고강신주사를 베풀엇는데 최후의 주사를 놋흔 새로세시십오분경에는 주사의 효험이 난듯하야잠이드시는 모양이잇슴으로 그후부터는 주사도 중지하엿든바 오젼다섯시반경에는 더한층 위중하시게되시여의식이몽롱하섯고맥박이미약하시다가 필경여섯시 십오분에는「위독」하시어한국최후황뎨의 궁뎐에는 다시것치지못할구름이몽키고또뭉키엿더라

殿下의御趣味
본보를항상어람하서

일한합방이후 오직내뎐에 갑혀드시사옥돌(玉突)과산책으로세월을보내시고 세사를 니즈신듯하나 세상형게를아시고 십흔마음은지극하시사 신문을 유일한벗으로 하시고게시엇다 는데황공한말슴이나동아일보(東亞日報)를사랑하시어신문이배달될 오후여섯시 쯤되면 매일내인을 서춘금호문(金虎門)에내보내시사가다리게하시다가배달되는대로즉시현상케하야 정독을 하시엿다고창덕궁모고등관은이야기하더라

本報號外發行
작일오젼여덜시에

작이십오일 일반시민이 아즉 이른아참에단잠이깨이기도젼 오젼여섯시에 그동안 평복의 서광이보이든리왕뎐하의어용태가갑작히 위독하신 보도를 접한본사에서는 시각을 머무르지아니하고 즉시호외를 발행하야경성시내외일만시민에게반포하는 동시에 각디방에도이것을발송하야디방독자에게그소식을뎐하게되얏다

危篤後入侍 世子宮의哀痛
세자궁의지극하신애통
蒼惶罔措한侍臣

여섯시십오분의용태를친히본시밀내인 모상궁의말을듯건대 왕세자뎐하께서는 새로 세시가되도록 병상을떠나시지안코 간호하시다가 세시십오분의 최후의 주사가 효험을보아 뎐하께서는 가벼운 잠이드시매 암연박사는 이제는 얼마동안 안정하실모양이니 큰변화는업겟다고 성언하고또내인들도 세자궁의 피로하신을 념려하여 취침하시기를아뢰으로 세자궁은 세시이십분경에병실인 후복헌을 떠나시어락선재(樂善齋)에돔시엇던바오젼다섯시에이르러뎐하의용태가아주변화하야맥은다풀리시고호흡도극히 불완전하게 되섯슴으로 다섯시반이지나 세자궁에 급한을아뢰엿스나 세자궁께서 입시하섯슬때에는 벌서여섯시십오분이 지난후이엇슴으로 세자궁의애통은 더한층 망극하섯섯다는데뎐하께서는권연상실되신의식중이시면서도맛까지세자궁을대면하시고십흔긔색을보히섯슴으로 시밀내인들은 더애통하야 목을노하 우는이도 잇섯다고뎐하더라

龍顔번득이는 昌德宮의하늘
◇근심의구름넘어로뵙는 칠십년래의늣거운일들◇

근심스러운구름이 창덕궁을덥흔지벌서멧달에 감엿다가는새어나오고 열렷다가는도로맥히는햇빗치 어떠케만민의얼굴에 깃븜과슯흠을 겪금내기로갈마들게하얏는가 더욱요즈음에는 구중(九重)으로서 나오는괴별이날로길항을더하야 오래흡엿든날빗도인제는 펴처가는봄빗과한가지 컨보담더한광명을나타내시려라 하얏더니 어제아츰에이로려는 별안간 황룡의 미운 비늘조차 구름사이에번득어림을 봄은 이것이 무슨천만몽매밧게일인가 완악한 구름과사오나운안개가 이내그짓흔상막을것지아니하고 말는지도모름을생각하면 무거운근심이 새로히 량미간을 잠을쇠질하고 압흐로바랄것이업스신듯한대로 가슴속에묵거쳐옴으는것은 늣거우신 녯일이다

◇

룡희상감의일을 말하자면 처젼로 고종(高宗)선상감의일을 생각해야되고 따라서대원●과 민씨사이의갈등과 김씨의세도일은래력에까지 소급할필요가 잇다 시방부터 칠십칠년젼 헌종황뎨 십오년 긔유사월어느날밤이 이슥한때에 임이다 그때『세도』의 자루를 잡아서 공중에 나르는 새라도 그집의 우에서는 숨을크게쉬고 지내지못하는『교동 대감』의대대문을 어려웁업시 쌔괴고들어가는이가 잇섯다 교동대감이란이는 순조황뎨의 중궁이신 순원황후(純元皇后)의 올아버니로 안동김씨의일족을거느려지내든 하옥김좌근(荷屋金左根)을일컷든말이다이이의집이라도암야에서습지 아니하고문을두드리는이는방재종묘의 하향대제(夏享大祭)로부터 돌아오는김수근(金洙根)이니 다만 하옥의근친이래서뿐아니라 실상안동김씨일문의 성쇠에관계되는중대한일을가진것이 더욱 그로하야 곰서숨이잇게 한것이엇다

◇

침방에 혼자누엇든 주인이아닌밤중에급작 스러이온까닭을 못기도기다리지 아니 하고턱에닷는숨도도룰겨를업시 김수근은주인의귀를 붙어대고 황급한무슨수작을 시작하니 한마데두마데말이걸어 지는대로 주인의얼골에도 신경의 떨림이 업섯다 시방 김수근의 입에서 나오는말이 다른것이아니라 국가의대사인동시에김씨의오십년세도가 자칫하면 하잘것업시 쇠기는 대관절임을생각하면 이두사람의거조가이러틋황망스러움이 실로우연치아니함을알것이다 이때김수근의 온것은 방재종묘의제향에참예하얏다가강신(降神)하든술잔잡으신상감의손이 이십세가넘은지얼마되지안흔신파 갓지아니하야 떨려서것잡지못하심을 뵈옵고 그것을알리려함이엇다

◇

이것이 청데(聖體)에관한 중대사임은 무론이지마는특별히김씨의세도와 그일문의성쇠에관한일이라하야 아닌밤중은큰한방의 수근거림이됨은무슨까닭인가 이것은세도란것이 대개외척(外戚)이라는 배경을가저야 하는것이오 권무호무한안동김씨의 오랜세도가또한순원황후를받들어 유지되는것이오또압호도 더욱김씨의권세를옹호하야 나가려하면 룡상(龍床)이길히 김씨집안의사위나외손이래야하겟는데 김씨집사위되시는순조께서는 이미 승하하시고순원황후의 몸에서나신 효명세자(孝明世子)께서도 불행히보위(寶位)에 올으시기젼에 세상을버리시고 이때상감이신 헌종께서는 아직까지 사속(嗣續)이업스시매만일의변이잇는뒤에는외척관계가 어떠케될지를모름이 김씨비의거상적정하든일임을생각하면 헌종황뎨의 건강하옵신여하가 사사로이김씨의성쇠에 아모것보담큰관계잇슴을 얼른짐작할것이다 (계속)

宮內省에發電
만일승하하섯다하더라도 답뎐이업스면발상을안해

여섯시십오분경에 즉시 궁내성에 뎐보를노핫스나 작일오후한시까지 회뎐이업슴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형편인바 승하하시엇다는 발표가잇다하면홍태주(洪宅柱)량만긔(梁萬基)씨의 두봉시가 작일아츰부터 입시하엿스나아직수신도아니하엿스며발상이되지못하엿슴으로복상도하지 못하엿스나 궁내성의 정식발상이잇는대로즉시대조뎐(大造殿)으로모시고빈뎐(殯殿)으로 안동별궁(安洞別宮)에잇는내인들의 복상을위하야 도포의(道袍衣)감으로 베옷필을작일오젼에사드리엿다더라

御陵은裕陵으로!
어릉은선비뎐하의유릉으로

궁내성발표가업스면알지못할배이나 장차뎐하의 어릉소는선비뎐하이든민비(閔妃)를안장한독섬(纛島)유릉(裕陵)으로내뎡되는듯하다더라

總監도參內
총독대리로

창덕궁뎐하의위독하옵신발표가 잇자호남디방 려행중에잇는 재동(齋藤)총독은급거귀환중에잇다하며 총독대리로 탕천(湯淺)총감이 참내하엿스며 조선군사령관 삼시(三矢)경무국당 긔타 총독부 고등관동도 뒤를이어참내하엿더라

舊臣參內

진히모시고잇는 모씨의말을듯건대맥박은차차희미하게되시고 의식은각각으로흐리시게되시어 만적의 효험이엄슴을아신 왕뎐하께옵서는 병상에서 별서열시두시반경에 각종친과 구신들을 불크라는분부가게시엇슴으로 극시사람들각방면으로노하리준공비(李埈公妃)와 리강공비뎐하며 리달용(李達鎔)백작등은새로한시가조곰지나서 입시하매 뎐하께옵서는 의식이몽롱하신중에도 정신을 가다드무서서 무슨말슴을하실듯하실듯하시다가는다시 눈을감으시고말으사엇슴으로입시하엿든이들은 목이메히는 암루를금치못하여 낫을돌리엿다고하는데 새로서시경에는 구신과종친들이 거의전부 입궐하엿스나주사후에잠간잠이드신후이엇슴으로배알치못하엿는데여섯시오분부터는 마차 자동차인력거등 백여대의거마가 궁내궁외에가득차서실로형용치못할광경을보혓더라

長安에悲報돌자 北村은全部撤市
—비방울썰어지는돈화문전수운은 칠년전긔미년의대한문전엣추억—
天候까지陰鬱한昨朝의昌德宮

령향과가치창덕궁뎐하께옵서아조회춘하실가망이업스시다는뜻밧게들나온 소식이 당안당외에뎐하게됨을따라 아직도 녯날을주억하게되는감개한괴분이경성천시에 가득히찻는데 여러해동안왕뎐하를모시고잇든 창덕궁(昌德宮)은왕뎐하의위독하신소식을세상에뎐하게되야말업는슯픔의긔색을띄우고 쏫다운봄바람을등지고잇거니와황감한소식을늣게된종로일대(鍾路一帶)와북촌상가(北村商街)에서도작이십오일이 공휴하는 일요일이안임도불구하고 너나할것업시 모다가가문을닷치고못내슯픔의뜻을표하며시가로오고가는사람들도빗업는얼골로수심을띄고다니는데오젼에는 킹명하던 련후조차오후부터는 돌연히변하야 련공에는수우(愁雨)의거믄구름이가득히가리여잇다금빗방울을떠트려무심한련긔조차슯픔을표하는듯하는것이지금으로부터칠년전긔미(己未)년일은봄에덕수궁(德壽宮)고종태황뎨께옵서위독하시던때의엣감개를말하는듯하다태황뎨께서위독하시던때에는덕수궁을중심으로대한문(大漢門)일대가뼈아닌슯픔의 가을과분이나타나더니작일아츰이후로는칠년만에또다시 창덕궁을중심으로돈화문(敦化門)일대에쏫석긴슯픈바람이 쏫업시 봄뎐이다뼈뼈로 궁중으로 들고나는종친각궁과 구신들의 발자취가잇는외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사람들이 돈화문압 넘는 길에 수업시 모혀들어 황감한 생각으로 무슨소식이나 들을까 하고쏫업시 돈화문안만 바라다보는것이마치 칠년전 어월에대한문압헤서 수업시 모혀 애통하던군중의 광경을또다시 추억하게된다 뼈는마회가 방창하는쏫다운봄이언마는창경원(昌慶苑)에가득히찬만자천홍(萬紫千紅)도슯픔과괴운을 먹음고 다시는것분소식을 들을수업는 창덕궁뎐하의환후를 못내 여보이는듯 하엿더라

愰恐中緊張한 警察當局動靜
민심이동요될가념려하여 뎌당한방침으로경계할터

리왕뎐하의어운데가위독하신상태에빠지사여이미회춘되실가망이 업스시다는 소식이뎐해자작어십오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리태왕뎐하께서 승하하신당시와 일과일반민심의 동요를생각함인지 경무국을 비롯하여경찰부이하 시내 각경찰서에서는 경복경관들이 전부출동을하야 룹시긴장된 태도로사내를엄중히 경계하고 잇섯는데그중에도 종로경찰서 에서는고등계외형사 전부와 기타외근순사들까지 사복을식히어 가지고애수어린 창덕궁근변을 비롯하야관내각 요소요소를 경계하고잇섯스며 그외다른 경찰서에서도대개 그가튼방법으로 경계한모양인데 일변경무국과 경찰부에서는 각디경찰에 정보를발송하야 조선각디에도 일일히경계케하는 모양이엇다 그보다조곰젼 오젼열한시경에 삼시(三矢)경무국당은 창덕궁에 참내하엿다가 즉시총독부로 도라나가 뎐중(田中)경무국 고등과댱과 안등(安藤)경찰부댱을 불너놋코 금후경찰의 경계방침과그밧게 여러가지에관한것을 상게히 협의하엿다더라

昌慶苑閉苑
밤노리는작야부터 낫구경은오늘부터

만발한 벗쏫에 찬란한봄을켜 홍진에지친 일반시민에게 하로밤의 위안을주려든 창경원은 본보와가치 리왕뎐하뫼옵대가작조며섯시부터갑작히위독하신상태에어르시어상하와내외가다가치우려에빠지어 매우 경황어업는중임으로 야앵(夜櫻)은 작야부터당지하고 주간공개는 금이십륙일부터 림시중지하리라는데 완상객을기다려 평화로히 피엿든 창경원의 벗쏫은 속절업시 홀로 피리라더라

警戒方針

왕뎐하께옵서 불행승하 하옵시는일이계옵시다면시내각경찰에서경계할방침은대개다음과갓다더라

一、要視察人及要注意人의動靜
二、前韓國舊官吏及全州李氏宗約所關係者의動靜
三、思想團體及宗敎類似團體又는社會事業團體의動靜
四、京城驛、龍山驛、南大門驛等의乘降者의狀況探察
五、宿屋、料理店及飮食店出入者의狀況探察
六、流言蜚語及不穩文書印刷及頒布에對한探察과注意
七、不穩한宣傳及煽動에對한注意取締等이더라

哭班節次
다음가치구별

왕뎐하께옵서만일승하하옵시는일이계시다고하면발표후에조문하는사람에게 다음과가치 구별하야어조문을허락할터이라더라

一、近親 貴族 承襲官 總督 政務總監 軍司令官 師團長等은內殿外지
二、高等官 公職者 銀行會社重役 從六位勳六等以上 赤十字社特別社員以上及愛國婦人會役員 在鮮軍人會長及聯合會會長 外國領事等은仁政殿外지
三、其他特許許可를바든者는敦化門前에서

◇寫眞說明◇
(上) 종로철시와돈화문전의광경
(中) 송백이울침한창덕궁내뎐
(下) 이십일년젼즉위하시든광경

◇「사가」구락부와 연전축구시합

公務妨害와騷擾罪로 各其體刑을求刑

피고들의증인신청은각하 都草小作爭議公判

작년구월에 무안군도초도(務安郡都草島)에서일어낫던 소작쟁의의희생자로 당시 수십여명의 소작인들이 검거되야 우금칠팔개월동안을광주(光州)디방법원 예심에걸니어 잇던바 그동안대부분은 무죄로석방되고 김용택외십이명만 공무집행 방해와소요죄로공판에 부치어 지난십구일오후한시부터 동법원 데일호법뎡에서 내산(內山)재판댱의심리아래 횡전(橫田) 검사의립회로 개뎡되엿는데 당일재판댱으로부터 이번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소요죄로구분하야 심리하겟다고 선언한후 사실심리를 다맛치지못하고폐뎡하엿다가 다시 지난이십삼일 오후두시부터 계속개뎡하고전일에게속하야사실심리를맛친후피고들로부터 증인을신청하엿스나전부긔각하고 립회검사로부터 다음파가튼구형이잇슨후 폐뎡하엿는데 판결언도는 오월삼일에할터이라더라(광주)

公務執行妨害罪 ▲金容澤、金相寔各懲役十個月、▲文相鉉、金秉煥、朴𥘿珍各八個月 ▲朴正水、金宗甫各六個月

騷擾罪 ▲高京一八個月▲高萬希、崔東琅、姜京用、金宗彥、高亨彬各六個月

六大議案을可決

형평사전국대회의속보

긔보=이십사일오후한시반부터 시내견지동(堅志洞) 시텬교당(侍天敎堂)안에서열리엇던형평사전국대회는회의순서를 따라경과보고에 하다와 눈물에 일년간경과를듯고 새로운 눈물을흘리며 수십명경관의 경게중에 다음의 六대의안을 만장일치로가결한후 중앙집행위원으로 장지필(張志弼)씨외의수를비명을 개선하고폐회하엿다더라

一、差別問題、(가)一部無意識한民衆의侮辱的迫害에關한件(나)戶籍에關한件

一、生活問題(가)屠獸場料金에關한件(나)獸肉販賣에關한件(다)牛皮乾燥場에關한件(라)屠夫料金에關한件

一、敎養問題、(가)衡平少年의敎育普及의件(나)社員敎養에關한件(다)月刊雜誌에關한件

一、運動進行問題、(가)衡平支分名稱의件(나)同一한社員으로서不睦者에關한件(다)本部維持의件(라)運動線行動反抗者의件(마)衡平靑年會의件(바)衡平女性의件(사)衡平學友會의件(아)衡平少年會의件

一、社會問題、(가)一般思想運動에關한件

一、豫算編成、任員改選

漢北勞友創立

이십팔일창립총회

긔보=시내권농동(勸農洞)에잇는한북노우회(漢北勞友會)에서는그동안 창립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제반준비가 차착진행하야 창립총회를 오는이십팔일밤여덟시에 수은동(授恩洞) 경성무산청년회(京城無産靑年會)에서열터이라는데일반노동자의 다수내참하기를바란다더라

山淸에大山火

…륙백여뎡보소실

지난이십일일 오전열한시 경남산청군 삼장면유평리(山淸郡三壯面油坪里)대원사(大源寺)소유산림에서 불이일어나며 맛츰맹렬히 부는바람에 불의형세는것잡을새업시여섯시간동안에 륙백여뎡보를태운후 화세는맹렬한바람을 따라지이산(智異山)상봉을향하고 쌧치게되여의연히연소되는중이엇것는데이급보를들은 산청군령에서는 각과계자가현장에출장하야부근주민 삼백여명을출동식히어진화에노력중이라더라(산청)

南米에大洪水

피해자가삼십여만명이오 류실된가옥도다수하다고

남미「부라질」북부의고원디방에는 비가몹시와서「파라나」하수가범남되야「후로리노」방면에는다수한 가옥이 류실되엿고 피해자는삼십만명이상에달하야 손해가 막대하다더라 (나웍이십삼일뎐보)

米國에大旋風

미국「텍사스」주「데랄론」북쪽에잇는넓이이백「야드」나되는촌에큰회오리바람이부러서 가옥삼십여채가 파괴되는동시에열일곱명이죽고 이십명이중경상을 당하엿다는데부근일대농작물의피해는 전멸상태라더라(뉴욕뎐보)

露都洪水刻刻危險

긔보=로서아「모스코」하수는이십일 밤부터각각으로위험하게증수되야 이십삼일새벽에는드되여하수가 범람하야 연안에잇는 각공장과 긔타가옥수천호의 디하실에침수되엿는데 이번홍수는근년에 히유한홍수라하며 아직도증수중이라더라(모스코뎐)

技競動運

一進一退 無勝負로閉戰

延專對사가蹴球

大阪사가俱樂部軍對延禧專門學校軍의蹴球試合은豫定과갓치二十四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京城運動場에서『사가』先蹴로擧行되엿는데前半戰에延禧軍猛烈한攻擊戰을始하야肉迫數回에『골』一點을入하엿고後半戰에는戰勢가延禧에多少不利하야『사가』軍이『골』一點을入하엿는데그後로는一進一退하다가結局無勝負로閉戰하니때는同六時五分頃이엇다

朝鮮軍快勝

三對一로사가敗

大阪사가俱樂部對京城朝鮮蹴球團의試合은二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擧行되엿는데『골』三對一로朝鮮軍이快勝하엿다

排斥밧고自殺

본부버린녀자

지난이십이일오후일곱시경에경남거창군거창면하동 (居昌郡居昌面下洞)신종량(愼宗良)의 집에서것방사리를하는김상두(金相斗)의첩리이수(李二壽)(二二)는면도칼로자긔의목을찔느고무참히자살을하엿는데 그는지금으로부터 약칠개월전에 본부를배반하고 김상두의첩이되여 지내든중김상두는 그의청집이 포학함을알고서로 갈리여 사는것이조흠을로맘을수차하엿든바마츰내그를 비관하야 그와가치자살한것이라더라(거창)

老婆轢傷

청결구루마에

이십오일오전 일곱시반경에 시내평동(平洞)일백삼번디장성녀(張姓女)는부근일백사번디 윤병찬(尹秉贊)의자화상압헤서 인분을실고 지나든하우차(荷牛車)에치여두다리에 약이개월동안치료를밧을 상처를 당하야즉시적십자병원에 입원식혀 목하치료중이라는데 동하우차를 끌고가든차부는 고양군은평면갈현리(高陽郡恩平面葛峴里)이백일번디김긔봉(金基奉)(二一)으로 그곳에는 길이곱은관게로 그와갓치치인것이라하며아모래도두다리는완허절룽편이라더라

溝中에嬰兒屍

지난이십삼일오후에 리천군읍내면 시외(利川郡邑內面市外)「고래골」이라는 으식한산모퉁이 길엽헤잇는집흔웅덩이에게집아희의죽은시테하나가 떠잇는것을 당디경찰서에서 발견하고 경관이현댱에출장하야 시테를 검시한후 목하그범인을 엄탐중이라는데 엇던녀자가 불의로 아희를나코 그와가치 죽여서 내여버린듯하다더라(리천)

全州에도嬰兒屍

전주완산뎡(全州完山町)보리밧속에 암장한 게집애사테를 지난이십삼일오전에 발견하엿는데 출생즉시로 무더죽엿슴으로 전신이맨퉁부엇스며경찰서에서는목하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전주)

特派員派遣

조선사회단톄중앙협의회(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와조선사상동맹(朝鮮思想同盟)에서는 작이십오일에 그천년사무를씬특파원이다음과가치파견되엿더라

忠淸南北道宋珍氏外二人 黃海道鄭雲永氏外二人

少年日宣傳文 百萬枚를印刷

당일의노름노리와상품

조선소년운동협회(朝鮮少年運動協會)의주최로오는오월일일 「어린이날」을긔념한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전선각디와 경성시내에뿌릴 선전지는 각디의청구가격증하야 륙십만장을 인쇄하라든것을 백만장으로하고 참가단체도 돈화소년회(敦化少年會)와 도화동구락부(桃花洞俱樂部)도 참가하엿스며 정성의 당일식장인 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마당에서가뎡식을맛친후에는 소년소녀가 고무풍선을날니어 가장멀니 보낸사람과또그것을 주서온 사람에게는다음과갓흔상품을준다더라

一等 목다리구두한켜레씩 二等 하생시게한개씩

檀祖御天紀念

금이십륙일에시내계동대종교당(大倧敎堂)에서는 오전열한시와 밤여덟시에어천졀(御天節)긔념식을거행할터이라는데 교외인이라도다수히참석하기를바란다더라

◉天氣豫報◉ 曇雨模樣

昨日正午 一五、六 昨日最低 一〇、九 昨年昨日正午 一五、二

連載小說豫告

歷史小說 麻衣太子 春園作

여러분의 만흔 환영을밧든「천안긔(千眼記)」는 오래중단되엿든 관계로 독자의흥미가 업슬것뿐아니라 작자의 생각하는바이잇서 단연히 중지하고 본보속간을 긔념하기위하야 새로지은 력사소설「마의태자」를 련재하게되엿습니다 마의태자는 신라(新羅)최후의 님금인 경순왕(敬順王)의 왕자로서 신라가 망하게되매 부왕에게최후의 결전을권하다가 듯지아니함으로 어머니되는이를 모시고 금강산에드러가 일생을마친이외다。 작자춘원은 그의 웅건한붓을새롭게하야 신라구백년사직이 멸망하는비극을 중대로하고 궁예(弓裔)견훤(甄萱)왕건(王建)등의 절세영웅의 삼각전(三角戰)을 여실히 그려냇습니다。 소설인동시에 력사이오 비극인동시에 활극인 이새작품이 만천하독자에 공전(空前)의 환영을 바들것을 의심치안습니다。

동화 바보이반 (六)

어린이

을혼말슴이라 생각한이반은 마귀새기에게서어든 나무새리약을가지고 집을떠낫습니다얼마안이가서 한탈을쓰지못하는거지를하나 맛낫습니다그딸이엇더케나가여웟든지 가지고가든약을그거지에게주어 버리고도라왓습니다 아버지는 공주님의병이 더크지안홀가하시면서 슈종을하셧습니다이반은 공주님또가엽다는생각이나서 그대로 집을떠나슬금슬금나오노라니 「가도인제쓸데업서 밧서나무쌔리도주어버렷스니」아버지는이러케말슴하셧습니다 그러나이반은 「어듸한번가보기나합세다」하면서어슬넝 어슬넝집을떠낫습니다 이반이 임금의 궁궐안으로밋처돌어가도못하여 공주의병세는차츰차츰 가비워 지드니만 이반이 공주를 대할때는발서

쾌하게 나서버렷습니다 임금은엇더케 깃버겟습닛가 령을나리운대로 이반은임금의사위가되엿습니다 임금이도라가시자 이반은그뒤를이어 그나라의 왕이되엿습니다

이로서이반의삼형데는셋이다 똑가치 훌륭한임금이되고말엇습니다

그런데이바왕만은형님네처럼 권세를부리기나 태도를돌내도안이하고 전에닙엇든농부의옷을그대로닙고 씨어진신을신고 날이변함도업시 밧흐로나가서일을하엿습니다 신하들은임금이일을하는법이 안이라고말니기도 하엿지만은 이사람이농사를안이하고 무엇을먹고살어가면서도지를안 엇습니다

이반임금이 재판을하는것도별스러웟습니다만일 남의돈을도적하여가는사람을 잡어왓더라도아마그사람이 쓸데가잇는게로구면하면서 벌을주는일도 업섯습니다

그래서백성들은바보임금이라하며밋헤잇든신하들도 모두다 제맘대로가버렷습니다 나종에는아모도업서지고 바보왕과두 사람밧게남지를 안엇습니다

◇

그런데색가마귀들이도라오나 하고눈아빠지게 긔다리든코마귀는할일업시 제가차저나섯습니다 밧가에와서 구멍이세낫이울어진것을보고 아모리하여도내가해내여야할수밧게 업스리라고 생각을햇습니다

마귀는 먼저장군이되여서 셈욘왕에게로갓습니다 셈욘왕을용하게도속여가지고 그의나라의 대장이되여버렷습니다 대장이되여서는 이나라 키나라와 싸홈을시작하여서 그만못익이고 또시작하여서패하여서 군사를잇는대로죽여버리엿습니다 그러고보니 셈욘왕은할일업시 목숨이나살려고 도망을하지안을수 업게되엿습니다 이러케한사람은 망하게만들어노앗스니 마귀는이번에는 아주썩큰장사가되여서 다라쓰왕의나라로 차저갓습니다 가서는 돈을한냥업시 풀어노아서 나라안에잇는물건은 모다사드렷습니다 갑슬 다라쓰왕보다 몃갑절이나 더주고보니 백성들은 쌀이나 필목이나 모다 이마귀에게로팔엇습니다 나종에는다라쓰왕은 아츰거리량식거리도사드리지 못하게되여밥을굴멋습니다

언홍시

남주

학교에갓다가
떨면서오니
어머님이볼밋해
무더줍되다

이볼을힙싸고
가만이잇스니
어머님언홍시
가져다줍되다

주신감다먹고
치어다보니
어머님빙긋빙긋
우스십데다.

몃십년지나서도
겨울만되면
어머님그얼골
생각이납니다

령미에서 어린이날긔념

오는오월일일「어린이날」을리용하여 경의선령미(嶺美)에서는령미구락부 령미학원의주최로당디텬도교당강당에서 음악강화동화회를열니라는데 동화의우량자에게는 현상도잇슬터이며 여러가지유익한강연과유익이잇스리라고(령미)

탁영소년회발긔

연백군목단면 탁영시(延白郡牧丹面)에서는월반유지의발긔로 지난이십일오후칠시본보탁영분국에서 탁영소년회를 발긔하고총회는 본월이십사일에개최하엿다고(탁영)

인천소년군 입단식거행

인천조선인소년군임부에서는 그동안신단원을 모집중이더니 유년반급 소년반의응집자가 다예상수자이상에 달하엿슴으로 오는이십오일 오후일시부터 산수정해단본영에서 청대한입단식이잇슬터이라고(인천)

평강소년회 어린이날긔념

평강소년회에서는 오는오월일일소년메ー데ー를 긔념키위하야 방금모든준비에매우분망중이라는데 당일에긔념할절차는아래와가다한다

一、旗行列 午後一時부터
二、記念講演 同八時
三、提燈行列 同九時

場所는未定 (평강)

북청소년강연회

함남북청(咸南北靑)군노덕소년회(老德少年會)에서는 지난이십일오후여덟시에 당지칭년회관안에서 소년문데에필요한강연회를개최하엿는데 청중에게 막대한인상을주엇다하며 연사의연데는아래와갓다고

少年問題의一般的考察 金靑松
少年會를보고서 金裕作
人生의目的 權泰奎